

## 멜로드라마 장르에서 집에 대한 재현공간의 함축들 Implications of Cinematic Space(House/Home) in Melodrama genre

남 승 석

목원대학교

Nam Seung Suk

Mokwon University

### 요약

이 연구는 더글라스 서크(Douglas Sirk) 감독의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 (1955)과 이용주 감독의 <건축학 개론>(2012)에서 집에 대한 '재현' 공간을 고찰하였다. 두 멜로드라마 장르 영화는 등장인물들이 대사로 직접 표현한 수 없는 것들을 가구, 소품 등의 미장센, 특히 리모델링을 하는 집을 통해서 보여준다. 집은 욕망을 스타일과 형식을 통해 산출한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 장르의 공간을 특징짓는 서술적 사건과 모티프를 담고 있는 구체적 장소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멜로드라마 장르에서 집과 풍경들이 어떻게 영화적 공간(cinematic space)을 구성하고 그 재현공간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고찰한다.

### I. 서론 : '시대적 기질'과 멜로드라마

영화라는 매체가 촬영과 편집을 통해 공간을 재현하는 것을 영화적 공간(cinematic space)이라고 한다. 이 영화적 공간은 하나의 스타일로써 다른 예술들처럼 '개인적인 성질'과 '시대나 나라의 기질'을 반영한다.[1] 본 고에서는 멜로드라마 장르 영화에서 영화적 공간을 통해 나타난 '시대적 기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더니즘과 함께 발흥하고 19세기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한 멜로드라마는 자연스럽게 프랑스 혁명, 산업 혁명,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2] 멜로드라마라는 장르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 근대화 도래와 관련 된 두 중요한 주제인 근대성과 가족의 의미를 밝히려 한다. 특히 가족 멜로드라마는 가족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일련의 심리적 결정에 의해 관객에게 각인되며, 그 소재를 그 시대의 가족상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취한다.

예를 들면, 더글라스 서크(Douglas Sirk)의 1950년대 할리우드 영화들(<Magnificent Obsession>(1954), <All That Heaven Allows>(1956), <Written on the Wind>(1957), <Imitation of Life>(1956) 등)은 1970년대 이후 비평가들의 재평가를 받으며 가족 멜로드라마의 과잉을 스타일 영역에 재위치 시켰을 뿐 아니라 멜로드라마의 양식화의 표준이 되었다.

1970년 이후 멜로드라마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제작 당시의 사회현상을 투영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영상자료로써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한다. 토마스 엘세서는 더글라스 서크의 영화들과 같은 통속 가족 멜로드라마 장르가 사회전복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 현대 대중문화의 특징으로 스텐우트 홀이 언급한 억압과

전복의 이중의 구조가 서크의 영화들에서는 전복적인 성향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이용주 감독의 <건축학 개론>(2012)에 나타난 '시대와 나라의 기질'을 더글라스 서크 감독의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 (1955)의 분석에 기반하여 살펴봄으로써 집에 대한 멜로드라마의 '재현' 공간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한다.

### II. 본론

#### 1.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의 공간 분석

멜로드라마에서 공간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에서 멜로드라마 장르와 연관된 특별한 공간적 모티프들이 어떻게 미학적 규범과 이데올로기적 구속을 수반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이 영화에서는 캐리와 커비의 각자의 집, 그리고 물레방앗간 3개의 공간이 등장한다. 캐리의 집은 화려한 저택으로 커다란 방과 훌륭하게 꾸며진 정원을 가지고 있다. 과부인 캐리는 완벽한 공간과 결핍된 현실의 상황 안에서 갇히게 되고, 새로운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더욱 강렬하게 비춰진다. 캐리와 커비가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들 자신들의 집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 캐리가 커비에게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할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커비는 제 3의 공간인 물레방앗간을 리모델링하고 그 집에 캐리를 초대한다. 이것은 자신과 새로운 가정, 새로운 울타리를 갖자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현실과 욕망의 타협점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성품과 외관을 유지한 채로 그것을

단지 리모델링 한다는 점이다. 즉, 주인공들은 여전히 그들의 현실을 완벽하게 탈출할 수 없다. 현실은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개인의 욕망은 이를 비집고 표출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욕망이 현실을 완전히 뒤집을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 건축학개론의 집 분석

〈건축학개론〉은 과거와 현재를 플래시백을 통해 오가며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공간들을 보여준다. 첫째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공간, 둘째는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품에 안으며 새로 탄생하는 공간이다. 세가지 대표 공간은 각각 승민의 정릉 집, 정릉의 빈집, 서연의 제주도 집이다.

첫째로 승민의 서울 집은 세 공간 중 유일하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던 공간이다. 어머니가 가난하게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너무나 허름해서 가장 빨리 사라질 것처럼 생각되었던 이 공간은 영화의 그 어떤 공간보다 지속적으로 느껴지며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만 같은 사랑의 공간이다.

둘째는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 즉 정릉에 있던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전통가옥이다. 이 집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주인공들만의 비밀 공간이다. 이 공간은 수많은 1960년대 가족멜로드라마의 무대가 된 전통가옥으로 이전 세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가족의 공간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마지막은 과거를 품에 안으며 새로 탄생하는 공간, 즉 서연의 제주도 집이다. 〈건축학개론〉에서 서연의 제주집은 더글라스 서크와는 다르게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대한 조형적 시각화다. 서연은 지금 아무도 안살아서 허물어진 그 장소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위해 집을 다시 짓고자 한다. 이것은 이혼한 서연이 다시 가정(가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전치된 욕망이다. 이 집은 이야기의 절정단계를 거치며 서로의 그동안의 상처들을 치유해주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서연은 승민이 쓰러져 평안히 자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곁에 누워 잠이 드는데, 그 공간은 일층이던 집에 서연의 방을 이층을 조그맣게 올리고 남은 지붕 위의 잔디이다. 그들은 현재 가족이 아니라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실내일 수 없다. 이는 매우 해학적인 전개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둘의 감정은 집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결국은 멜로드라마의 특성인 사회적 모순과 그에 따른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한 전치를 통한 투항을 의미한다.

## Ⅲ. 결론을 대신하며

〈건축학개론〉에서의 집은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두 영화 모두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 그리고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리우드 고전 영화 속에 담겨진 가정과 율타리라는 의미는 한국 현대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멜로드라마의 중요한 특성이다. 주인공들이 있는 공간은 그들의 현실을 나타내고, 때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갖는다. 멜로드라마의 결말이 현실과 욕망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들은 영화의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멜로드라마의 화려한 미장센은 주인공을 화면과 공간 안에 가두고 폐쇄공포 효과를 생산하며, 그로 인해 개인의 연약한 내적 상태를 외적으로 상징하게 된다.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의 론 커비(록 허드슨 분)과 같이 〈건축학개론〉의 주인공 승민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집을 리모델링한다. 두 집 모두 천장이 높고 창이 비현실적으로 크다.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에서는 호수, 그리고 〈건축학개론〉에서는 바다의 풍경이 관객을 비현실적으로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는다. 이 두 멜로드라마에서는 건축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인 구조, 색상과 실내장식, 조명, 세트, 배우들의 의상 등이 모두 의도적으로 과장되어있다.

〈건축학개론〉에서 넓은 창문과 높은 천장을 가진 서연의 제주도 집은 더글라스 서크 영화에서 나타난 몰래방앗간의 건축적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넓은 창문은 안정감을 주면서도 아쉬움과 아련함을 전달할 수 있다. 화려한 실내 장식과 넓은 집구조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흔들리는 나무 가지 그리고 그 그림자는 해소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과 성취하지 못하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으로 인한 주인공의 감정의 동요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건축적 특징들은 멜로드라마의 감정적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켜 폐쇄공포와 관련된 감정을 생산하는 주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 ■ 참고 문헌 ■

- [1] Belton, J. (2000). American cinema/ American culture. 이형식 역 (2008). 미국영화 미국문화 -2/E. 서울: 경문사.
- [2] Mercer, J. · Shingler, M. (2004). MELODRAMA: GENRE, STYLE, SENSIBILITY. 변재란 역. (2011). 멜로드라마 장르, 스타일, 감수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3] Barry Langford, (2005). Film Genre: Hollywood and Beyond. 배리 랭포드, 영화 장르, 할리우드와 그 너머, 방혜진 옮김, 한나래, 2010.
- [4] Thomas Elsaesser, "Tales of Sound and Fury," in Movies and Methods, vol. 2, ed. Bill Nichol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85), p. 177.